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Development of Family Welfare Service Program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임정빈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양희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기영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홍형욱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계선자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조교수 이정숙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순미

Dept. of Consumer and family, Hanyang Univ.

Prof. : Jeong-Bin, Im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 Ang Univ.

Prof. : Kim, Yang Hee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Ki Young,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Housing Kyung Hee Univ.

Prof. : Hyung Ock, Hong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

Prof. : Sun Ja, Kye

Dept. of Consumer and family, Hanyang Univ.

Assistant Prof. : Lee Jung-sook

Dept. of Consumer and Home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

Prof. : Soon Mi Kim

* 본 연구는 1996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연구배경	V. 결론
III.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mand for education program and the demand for counseling program of family welfare an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demand for family welfare service program. For these purposes, total sample of 909 women those residing in Seoul, Incheon, Taejun, Taegu, Pusan, Kwangju, Chungju, Junju and Choonchun, were selected. Statistics were frequencies, means, percentile, cross-tabulation, t-test and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family welfare service program o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improvement in family living, consumption, retirement planning, health management,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resource, volunteering and the advance of living culture, the demand for education program were higher than the demand for counseling program. In particular, demands for both education program and counseling program on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the highest. Second, age, residence and income had ver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mands for both education program and counseling program. By understanding these differences in the demand for education program and counseling program of family welfare, practitioners and educators may be able to develop family welfare service program to solve family probelms.

I. 문제의 제기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가족의 욕구와 가치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속에서 사람들은 욕구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가치관이 혼돈되는 등 개인적·가정적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게 된다. 개인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가족간의 유대가 약화되었고, 출산력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변동으로 가정의 부양체계가 와해되었으며, 사회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가족의 기능 및 역할, 가치관의 부전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즉 가정의 부양체계 와해 및 가족해체와 같은

구조적·기능적 문제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가정의 공동체생활은 부양체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양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면, 부양체계의 혼란은 물론 가정공동체의 존속마저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대가족이 구조적 문제·기능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여러가지 사회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복지사업은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 어려움에 직면한 불우아동,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 구조자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수혜대상

또한 극히 제한되어 왔다.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 되었을 때, 문제의 근원은 결국 가정이며 건전한 사회는 건전한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산업도 문제의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부양체계의 지원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을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포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예방하고 조정하며 치료할 수 있는 가정복지적 차원의 제도마련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기존방향을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일반 국민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 사무치료적 서비스에서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가정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 및 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지역사회내에서 주립대학이 주관하는 가정학 실천기구(Home Economics Extension Service Center)를 통해 가정생활의 상담, 교육, 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복지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제도로써,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도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도시가정의 복지와 생활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가정의 부부문제, 자녀 및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상실, 기본적인 생활교육의 부재, 생애교육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예방하고 계획·상담할 수 있는 사회적·행정적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기구에는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국내에 가정복지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구청에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등의 관련부서가 있으나 실제로 가정생활에 관한 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가정생활과 관련된 법, 제도, 시설, 기구 등에 대한 활용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서비스가 일반 가정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복지 관련서비스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통제하는 기관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부재로 복지서비스의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가정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앞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개인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정복지 관련서비스(가정생활교육, 가족상담, 소비자보호, 환경자원관리, 여가, 자원봉사체계, 보육 등)는 무엇이며, 가정복지 관련서비스의 요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파악을 기초로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복지 서비스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전 단계로서, 가정복지 관련서비스의 요구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 가정복지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초기에는 가족복지 서비스는 가족을 위한 기능조정, 역할개발 및 가치관 확립 등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가정복지를 개인과 가족의 사적 생활단위로, 또 복지는 경제적·물질적 지원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관련된 법과 제도가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구빈복지와 아울러 기능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산업화 메카니즘에 따른 가정복지 서비스의 요구는 가정과 사회의 유기적 공동체에 그 초점을 두게 되었다.

한편 20세기 이후 선진국에서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서비스정책의 방향은 개인과 가정의 보호기능을 대행해 주는 대체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은 가정복지 서비스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었고, 사회적 변화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시각과 병리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가정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가져 오으로써 사회민주주의형 복지와 시

장자유주의형 복지가 나타나게 되었다.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형 복지정책은 개인 및 가족을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전향적인 가정정책을 추진하며 그것을 사회정책의 통합적 일부로 보는데 반해, 미국의 시장자유주의형 복지정책은 가정의 문제를 개인 및 가족이 책임을 지는 사적 영역으로 보고 복지정책을 선별적인 개인에 한정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 자신에 의한 복지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가정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는 가정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 및 제도의 설치·운영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농촌가정생활의 상담·교육·조정 기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지원의 통한 가정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농촌지역과 농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 복지문화생활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생활지도사제도는 교육과 상담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가정부양체계의 지원 및 가정문제 해결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볼 때, 가정복지 서비스 전문인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주로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초기적 단계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가정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사회변화에 따른 기능조절, 역할개발 및 가치관의 정립, 문제가정에 대한 재할지원 및 사회보장, 그리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정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정부의 특정시책이나 제도적 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차적으로 개인 및 가족의 실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

나 실제 가정생활은 생산의 기업화, 교육의 제도화, 의료의 전문화 등과 추세에 따라 가족단위의 자체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과 사회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가정복지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 및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가정복지 관련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나 요구가 파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인 및 가족구성원이 원하는 가정복지 관련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 참여경험의 관계를 조사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의 참여경험과 요구도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획득하는 가정복지 서비스정보의 정보원유형을 파악한다. 셋째,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 중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의 수준과 차이를 밝힌다. 넷째,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2.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이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개인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의 요구도를 파악하는 질문지로서, 질문지 구성을 위해 2차에 걸친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예비조사는 1996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실시되었고, 전국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공적·사적 가정복지 관련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화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2차 예비조사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199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의 가정관리학 전공교수 43명과 행정부서(시·군·구 등)의 가정복지 관련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기초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본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1997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

울(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 청주, 전주, 춘천(중소도시) 등에 거주하는 여성 1,2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배부된 질문지중 부실응답을 제외한 90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6세였으며,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43.7%이었다. 또한 결혼상태는 미혼이나 이혼 및 별거, 사별의 경우가 13.2%였고, 그들의 가족형태는 78.5%가 핵가족이었다. 거주하는 지역은 중소도시가 38.1%, 광역시가 33.6%, 서울이 28.3%의 순이었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PC+ Program(Ver. 5.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 요구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교차분석과 χ^2 검정을 수행하였다.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의 차이를 알기 위해 t검정을 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이를 위한 Duncan's 다중범위검정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의 참여경험과 요구도

1) 인구통계적 특성과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의 관계분석

조사대상자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취업여부와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참여경험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에 있어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가 249명(27.7%),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가 649명(72.3%)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은 연령 및 취업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는데,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연령은 40대였고 그 다음은 30대, 50대이상, 20대의 순이었으며, 취업상태에 있어서는 비취업인 경우에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비취업상태에 있는 40대 연령층이 가정복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09)

변수	빈도#	%	변수	빈도#	%
연령			취업여부		
30세이하	118	13.0	취업	397	43.7
31세-40세	272	29.9	비취업	512	56.3
41세-50세	393	43.2	결혼상태		
51세이상	126	13.9	미혼/이혼 및 별거 /사별	120	13.2
교육수준			기혼	789	86.8
중졸이하	100	11.1	가족형태		
고졸	360	40.1	핵가족	714	78.5
대졸이상	438	48.8	확대가족	195	21.5
소득			거주지역		
<100만원	53	5.8	서울	250	28.3
100 ≤ <200만원	362	39.8	광역시	297	33.6
200 ≤ <300만원	224	24.6	중소도시	330	38.1
300 ≤ <400만원	144	15.8			
400만원이상	41	11.6			

#: 빈도의 총합은 차이가 있음

〈표 2〉 인구통계적 특성과 가정복지 프로그램 참여경험간의 관계분석

변 수	요구도	참여경험이 있다 빈도# (%)	참여경험이 없다 빈도# (%)	χ^2
연 령	30세이하	17(6.8)	100(15.4)	12.91**
	31세-40세	76(30.5)	193(29.7)	
	41세-50세	115(46.2)	275(42.4)	
	51세이상	41(16.5)	81(12.5)	
	합 계	249(100.0)	649(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23(9.2)	75(11.7)	1.52
	고 졸	106(42.6)	251(39.3)	
	대졸이상	120(48.2)	313(49.0)	
	합 계	249(100.0)	639(100.0)	
소득수준	<100만원	17(6.9)	36(5.7)	4.24
	100 ≤ <200만원	91(37.1)	166(42.0)	
	200 ≤ <300만원	63(25.7)	161(25.4)	
	300 ≤ <400만원	48(19.6)	94(14.8)	
	400만원이상	26(10.6)	76(12.0)	
	합 계	245(100.0)	633(100.0)	
취업유무	취 업	87(34.9)	305(47.0)	10.63***
	비 취 업	164(65.1)	344(53.0)	
	합 계	249(100.0)	649(100.0)	

#: 빈도의 총합은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표 3〉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참여경험과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간의 관계분석

참여경험	요구도	필요하다 빈도(%)	필요하지 않다 빈도(%)	합 계
있	다	233(26.1)	15(2.7)	248(27.7)
없	다	564(63.1)	82(9.1)	646(72.3)
합	계	797(88.9)	97(11.1)	894(100.0)
χ^2		8.18**		

** P < .01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의 참여경험과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요구도와의 관계
조사대상자 개인의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참여경험과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간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과거에 가정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복지 프로그램의 참여경험과 관계없이 전체 조사대상자중 797명(88.9%)이 가정복지 관련서비스 프로그램의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개인이 가정복지를 위

한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특히 참여경험이 있는 248명 중 233명이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을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참여경험자에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가정복지 서비스정보의 정보원유형

조사대상자 개인이 가정문제(가족문제, 가정생활정보, 재정 및 세금문제, 상품구매 및 소비자문제, 노후생활문제, 주택문제, 환경 및 자원재활용문제 및 부업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만일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어떠한 정보원을 통해 획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가정문제중 가족문제, 주택문제, 부업문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이웃이나 친구 및 친지에 의존하거나 책,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가정생활정보, 재정 및 세금, 상품구매 및 소

비자문제, 노후생활문제, 환경 및 자원재활용문제는 책이나 신문 및 잡지, TV나 라디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보원은 수동적인 정보획득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적극적인 정보획득방법인 상담기관의 이용은 가족이나 이웃, 친구 및 친지, 책, 신문 및 잡지, TV 및 라디오와 같은 정보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처럼 계획적인 프로그램의 이용수준이 낮은 것은 기관프로그램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거나 개인이 경험하는 가정문제 유형 및 문제정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및 PC통신의 이용은 다른 정보원에 비해 그 이용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정보통신의 기회가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보획득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가정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이상의 결과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가정문제 유형에 따라 가정복지 서비스가 다양한 정보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4> 가정복지 서비스정보의 정보원유형

정보의 필요성과 정보원유형	정보가 필요하지 않음	정 보 원					
		가족	이웃 친구 친지	책 신문 잡지	TV 라디오	종교/사회/사설기관	컴퓨터 PC통신
가정문제 유형							
가족문제 (부부/자녀/고부/친척문제, 가족법)	48	277	472	442	417	178	12
가정생활정보 (여가선용, 가사노동능률화, 가정기기사용등)	23	131	346	555	477	106	21
재정 및 세금문제 (조세, 상속세, 저축, 투자 등)	36	207	245	481	384	95	17
상품구매 및 소비자 문제 (상품구매, 교환/고발, 소비자보호법)	35	123	335	443	461	136	7
노후생활문제 (건강, 여가, 금전관리, 노인기준비)	43	232	339	419	358	130	8
주택문제 (주택매매, 개조·관리, 임대차문제)	50	286	345	425	299	95	15
환경 및 자원 재활용문제 (음식, 의류, 가구 재사용 및 처분)	32	145	331	420	480	124	2
부업문제	168	106	259	273	181	58	12

※ 다수응답으로 인해 총합의 차이가 있음

2.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 차이 분석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구도와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를 살펴 보면, 아동 및 청소년 관련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주생활관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복지 상담프로그램의

<표 5>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 차이분석

가정복지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t값
	mean#	S.D.	mean#	S.D.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이혼, 재혼, 문제가정)	1.31	.057	1.30	0.60	1.05
아동 및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및 성교육, 학습방법 개선, 방과후 교육)	1.64	0.53	1.53	0.58	5.49***
가정생활개선 프로그램 (식생활·의생활 관리, 예절, 여가·시간관리, 기기사용, 생활컴퓨터)	1.27	0.52	1.09	0.57	10.19***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프로그램 (저축, 투자, 세금)	1.16	0.58	1.17	0.58	-0.26
소비생활개선 프로그램 (소비자교육, 계획구매, 건전한 소비, 소비자보호)	1.26	0.59	1.16	0.64	6.30***
노후생활준비 프로그램 (건강, 경제, 주택, 여가, 죽음준비)	1.31	0.60	1.27	0.60	2.68**
건강관리 프로그램 (식이요법, 노인치매, 성인병, 노인병)	1.44	0.56	1.38	0.60	5.63***
주생활관리 프로그램 (주택구매, 이사후 적응, 주택개조)	0.99	0.58	1.01	0.57	-0.99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프로그램 (음식, 의복, 가구의 재활용·교환·처분)	1.28	0.59	1.10	0.66	8.54***
가정생활관련 법률 상식 (가족법, 임대차보호법, 소비자보호법)	1.27	0.57	1.25	0.59	1.81
가정소득 증대 프로그램 (부업 및 취업관련 정보)	1.10	0.61	1.11	0.59	-0.87
자원봉사 프로그램 (아동·장애자·노인생활 지원, 의료보조서비스)	1.20	0.57	1.14	0.61	3.82***
생활문화육성 프로그램 (좋은세상 만들기, 지역공동체, 생협 등)	1.21	0.58	1.10	0.62	6.96***

: 0 = 필요하지 않다, 1 = 필요하다, 2 = 매우 필요하다

** P < .01 *** P < .001

요구도에 있어서도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주생활관리 프로그램은 가장 낮은 요구를 보였다. 가정복지 프로그램중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차이를 분석해 보면,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프로그램, 주생활관리 프로그램, 가정소득 증대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가정복지 프로그램은 아동 및 청소년관련, 가정생활개선, 소비생활개선, 노후생활준비, 건강관리,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자원봉사, 생활문화육성 프로그램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다르며,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내에서도 가정문제별로 요구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경험하는 가정문제별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분석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40세 이하의 연령층이 4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가족관계개선의 교육적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였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이 고졸이하의 학력자보다 가족관계개선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소득의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이 그 이상의 소득층과 비교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다. 또한 취업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족관계개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이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가족원들과 함께 있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완충적 역할전략으로 가족관계개선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밖에도 확대가족이 핵가족에 비해 가족관계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였고, 서울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가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교육적 필요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30대 이하 연령층이 자녀문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령층은 정신적·신체적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정생활개선 교육프로그램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정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가족생활주기가 후기로 갈수록 새로운 생활양식의 습득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득의 경우 100만원미만의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개선이 어렵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광역시 거주자들이 서울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가정생활개선 교육프로그램에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과 거주지역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에 비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증식에 관심이 많고, 평생동안 적립해 온 자산의 순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절세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자가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금융상품 및 재테크상품에 접촉하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소비생활개선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30세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층과 30대 및 40대 연

〈표 6〉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분석

변 수	빈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가정생활 개선 프로그램		재산증식/조세관련 프로그램		소비생활 개선 프로그램		노후생활 준비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연 령													
30세이하	118	1.44	A	1.67	A	1.26	B	1.14	B	1.34	A	1.30		1.37	B
31세-40세	272	1.35	A	1.65	A	1.28	B	1.09	B	1.19	B	1.29		1.40	B
41세-50세	393	1.23	B	1.56	B	1.24	B	1.12	B	1.24	B	1.29		1.44	B
51세이상	126	1.35	B	1.52	B	1.35	A	1.47	A	1.35	A	1.41		1.61	A
F-Value		4.76**		3.23*		1.28*		12.09***		2.71*		1.18		4.64**	
교육수준															
중졸이하	100	1.17	B	1.57		1.25		1.20		1.14		1.22		1.46	
고 졸	360	1.27	B	1.57		1.25		1.13		1.25		1.32		1.44	
대졸이상	438	1.38	A	1.63		1.28		1.15		1.25		1.32		1.43	
F-Value		6.34***		1.44		0.27		0.45		1.52		1.00		0.13	
소 득															
<100만원	53	1.61	A	1.72		1.48	A	1.13		1.40		1.45		1.44	
100≤ <200만원	362	1.30	B	1.59		1.22	B	1.16		1.22		1.24		1.43	
200≤ <300만원	224	1.30	B	1.60		1.28	B	1.18		1.30		1.34		1.47	
300≤ <400만원	144	1.27	B	1.61		1.27	B	1.12		1.24		1.34		1.43	
400만원이상	41	1.27	B	1.58		1.27	B	1.17		1.22		1.36		1.46	
F-Value		3.64**		0.71		2.98*		0.29		1.32		2.02		0.24	
취업여부															
취 업	397	1.37	A	1.62		1.28		1.15		1.27		1.35		1.40	
비 취 업	512	1.27	B	1.58		1.26		1.16		1.24		1.28		1.47	
F-Value		6.04**		0.96		0.56		0.04		0.39		2.33		3.31	
가족형태															
핵 가 족	714	1.29	B	1.60		1.25		1.15		1.25		1.30		1.44	
확대가족	195	1.40	A	1.61		1.32		1.18		1.26		1.34		1.44	
F-Value		5.06*		0.04		2.63		0.36		0.01		0.59		0.00	
거주지역															
서 울	250	1.38	A	1.61		1.32	A	1.26	A	1.33	A	1.42	A	1.51	
광 역 시	297	1.20	B	1.55		1.19	B	1.09	B	1.13	B	1.24	B	1.40	
중소도시	330	1.36	A	1.63		1.30	A	1.15	B	1.29	A	1.30	B	1.45	
F-Value		7.91***		2.20		5.49**		5.18**		8.70***		6.11**		2.45	

#: 빈도의 총합은 차이가 있음

* P<.05 ** P<.01 *** P<.001

〈표 6〉 계속

변 수	빈도#	주생활 관리 프로그램		환경보호/ 자원관리 프로그램		가정생활 관련 법률상식		가정소득 증대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생활문화 육성 프로그램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연 령											
30세이하	118	1.11	A	1.31		1.42	A	1.09	B	1.30	A	1.22	
31세-40세	272	0.96	B	1.31		1.24	B	1.06	B	1.17	B	1.23	
41세-50세	393	0.91	B	1.23		1.24	B	1.06	B	1.15	B	1.19	
51세이상	126	1.12	A	1.12		1.28	B	1.30	A	1.34	A	1.28	
F-Value		5.59***		1.27		3.20*		4.38**		4.09**		0.75	
교육수준													
중졸이하	100	0.86		1.28		1.16		1.07		1.12	B	1.07	B
고 졸	360	0.97		1.25		1.30		1.11		1.15	B	1.22	B
대졸이상	438	1.01		1.29		1.27		1.08		1.25	A	1.24	A
F-Value		2.36		0.33		1.88		0.20		4.10*		3.25*	
소 득													
<100만원	53	1.02		1.51	A	1.37		1.25		1.47	A	1.43	
100≤ <200만원	362	0.96		1.26	B	1.26		1.11		1.13	B	1.20	
200≤ <300만원	224	1.02		1.30	B	1.32		1.13		1.25	B	1.22	
300≤ <400만원	144	0.95		1.28	B	1.22		1.01		1.19	B	1.18	
400만원이상	41	0.96		1.19	B	1.24		1.00		1.21	B	1.26	
F-Value		0.47		2.48*		1.09		2.04		4.24**		2.05	
취업여부													
취 업	397	1.01		1.28		1.26		1.08		1.22		1.22	
비 취 업	512	0.96		1.27		1.29		1.11		1.19		1.21	
F-Value		1.83		0.08		0.66		0.58		0.63		0.07	
가족형태													
핵 가 족	714	0.98		1.27		1.27		1.09		1.17	B	1.19	B
확대가족	195	1.00		1.30		1.25		1.14		1.31	A	1.30	A
F-Value		0.13		0.25		0.19		1.09		8.03**		5.03*	
거주지역													
서 울	250	1.03		1.31		1.33		1.13		1.27	A	1.27	
광 역 시	297	0.93		1.21		1.22		1.05		1.12	B	1.13	
중소도시	330	1.00		1.32		1.29		1.11		1.22	A	1.27	
F-Value		1.99		2.56		2.57		1.14		4.46*		5.68·	

#: 빈도의 총합은 차이가 있음

* P<.05 ** P<.01 *** P<.001

령층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젊은 연령층이나 노인연령층이 소비자교육이나 구매,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은 서울 및 중소도시 거주자가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준비 프로그램은 거주지역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노후생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이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양적, 질적인 면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연령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50대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이 쇠퇴하고 만성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생활관리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연령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세이하와 50대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가족생활주기 중 중기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부담으로 주생활관리에 대한 관심이 낮으나 초기나 후기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은 소득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100만원이하의 소득층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의 재활용, 교환 및 처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경제생활을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가정생활관련 법률상식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령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세이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생활경험이 적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소득증대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만이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다른 연령층에 비해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정소득 증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노후의 인플레이션 대처방안으로서 다양한 소득원과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데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은 연령, 교육수준, 소득, 가족형태, 거주지역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이하와 50세이상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원봉사에 더 높은 교육적 관심을 가졌으며, 대졸이상인 경우, 소득은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확대가족인 경우, 광역시에 비해 서울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가 높았다.

지역공동체, 생협, 공동구매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육성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인 경우,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인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분석

가정복지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의 집단간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가족관계개선 상담프로그램을 보면, 30세이하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관계의 적응이나 가족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은 100만원이하의 소득층이 중산이상의 소득층에 비해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더 많이 요구하였으며,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취업하고 있는 경우 시간제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겪는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광역시에 비해 서울과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에 있어서는 30대 연

〈표 7〉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분석

변 수	빈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가정생활 개선 프로그램		재산증식/ 조세관련 프로그램		소비생활 개선 프로그램		노후생활 준비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연 령													
30세이하	118	1.41	A	1.50	B	1.10		1.12	B	1.23		1.20		1.23	B
31세-40세	272	1.33	B	1.66	A	1.12		1.14	B	1.15		1.28		1.39	B
41세-50세	393	1.24	C	1.47	B	1.06		1.14	B	1.10		1.26		1.37	B
51세이상	126	1.33	B	1.49	B	1.16		1.34	A	1.26		1.39		1.55	A
F-Value		2.50*		4.98**		0.84		3.68*		2.08		1.69		4.52**	
교육수준															
중졸이하	100	1.23		1.45		0.98		1.25		1.02		1.25		1.45	
고 졸	360	1.30		1.54		1.11		1.11		1.18		1.26		1.38	
대졸이상	438	1.33		1.54		1.10		1.17		1.16		1.28		1.35	
F-Value		0.83		0.81		1.53		2.34		2.04		0.13		0.97	
소 득															
<100만원	53	1.52	A	1.64		1.33	A	1.12		1.37		1.40		1.43	
100 ≤ <200만원	362	1.26	B	1.50		1.01	B	1.16		1.10		1.22		1.35	
200 ≤ <300만원	224	1.37	B	1.62		1.17	B	1.24		1.20		1.31		1.42	
300 ≤ <400만원	144	1.31	B	1.46		1.10	B	1.09		1.18		1.23		1.35	
400만원이상	41	1.20	B	1.51		1.08	B	1.18		1.08		1.37		1.41	
F-Value		3.12**		2.20		3.61**		1.33		2.07		1.88		0.56	
취업여부															
취 업	397	1.35	A	1.53		1.11		1.17		1.19		1.30		1.32	B
비 취 업	512	1.26	B	1.52		1.08		1.16		1.12		1.26		1.42	A
F-Value		4.52*		0.03		0.42		0.10		1.86		0.81		4.59*	
가족형태															
핵 가 족	714	1.29		1.53		1.08		1.17		1.16		1.28		1.40	A
확대가족	195	1.36		1.52		1.15		1.12		1.13		1.24		1.29	B
F-Value		2.12		0.03		1.79		1.01		0.30		0.55		4.10*	
거주지역															
서 울	250	1.34	A	1.53	B	1.14	A	1.23		1.22	A	1.33		1.41	
광 역 시	297	1.22	B	1.44	B	1.04	B	1.11		1.03	B	.23		1.35	
중소도시	330	1.34	A	1.62	A	1.14	A	1.18		1.22	A	1.27		1.40	
F-Value		3.02*		6.64***		3.57*		2.85		7.33***		1.77		0.65	

#: 빈도의 총합은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계속

변 수	빈도#	주생활 관리 프로그램		환경보호/ 자원관리 프로그램		가정생활 관련 법률상식		가정소득 증대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생활문화 육성 프로그램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연 령													
30세이하	118	1.04		1.07	B	1.38	A	1.11	B	1.24	A	1.06	
31세-40세	272	1.03		1.20	A	1.21	B	1.13	B	1.17	A	1.14	
41세-50세	393	0.98		1.03	B	1.21	B	1.05	B	1.06	B	1.06	
51세이상	126	1.04		1.14	B	1.31	B	1.25	A	1.27	A	1.13	
F-Value		0.64		2.99*		3.05*		3.03*		4.35**		0.79	
교육수준													
중졸이하	100	1.00		0.97		1.28		1.09		1.07		1.23	B
고 졸	360	1.00		1.06		1.25		1.12		1.11		1.30	B
대졸이상	438	1.01		1.12		1.23		1.09		1.18		1.33	A
F-Value		0.05		1.72		0.24		0.20		1.75		0.83*	
소 득													
<100만원	53	1.07		1.42	A	1.45		1.25		1.40	A	1.23	
100 ≤ <200만원	362	1.00		1.07	B	1.22		1.11		1.10	B	1.06	
200 ≤ <300만원	224	1.05		1.12	B	1.28		1.14		1.17	B	1.16	
300 ≤ <400만원	144	0.94		1.07	B	1.19		1.08		1.13	B	1.06	
400만원이상	41	0.97		1.03	B	1.23		0.98		1.17	B	1.04	
F-Value		0.87		2.90*		1.85		1.88		2.55*		1.32	
취업여부													
취 업	397	1.03		1.10		1.21		1.10		1.16		1.10	
비 취 업	512	0.99		1.09		1.29		1.12		1.13		1.08	
F-Value		1.07		0.03		2.90		0.18		0.41		0.07	
가족형태													
핵 가 족	714	1.02		1.08		1.27	A	1.12		1.13	B	1.08	
확대가족	195	0.98		1.15		1.16	B	1.08		1.19	A	1.13	
F-Value		0.45		1.18		4.40*		0.53		8.03**		0.88	
거주지역													
서 울	250	1.06	A	1.10	B	1.28		1.13		1.23	A	1.12	B
광 역 시	297	0.93	B	1.02	B	1.19		1.05		1.02	B	1.01	B
중소도시	330	1.00	B	1.19	A	1.28		1.11		1.20	A	1.16	A
F-Value		3.31*		3.99*		1.93		2.01		8.71***		3.84*	

#: 빈도의 총합은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령층이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령층은 정신적·신체적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의 자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은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중소도시 거주자가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소도시가 서울 및 광역시에 비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여가생활 및 관련활동의 사회관련 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가정생활개선 상담프로그램은 100만원미만의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는 의식주관리, 여가 및 시간관리 등과 같은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개선에 경제적 제약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광역시 거주자들이 서울과 중소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가정생활개선 상담프로그램에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상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0대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경제적 준비를 위한 필요성이 그 어느 연령층보다 높게 인식되며, 상대적으로 동일한 연령대에서 재산증식을 성공적으로 한 경우보다는 경제적 수준이 그렇지 못한 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재무상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생활개선 상담프로그램에서는 거주지역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광역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 비해 소비생활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의 경우 대규모소비에 따른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중소도시의 경우는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 소비생활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후생활준비 상담프로그램에 대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건강관리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는 연령, 취업여부, 가족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0대이상의 연령층이나 핵가족은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보호법에 의해 의료보험 조합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 취업한 경우보다 비취업인 경우 건강관리의 상담필요성을 더 높이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자의 경우 회사나 취업기관에서 정규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상담프로그램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생활관리 상담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거주지역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서울시에 거주자가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 비해 주생활관리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과 서울시의 자가주택보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점에 비추어서 상담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3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담의 필요성을 더 많이 요구하였으며,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환경 및 자원관리 상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거주지역에서는 중소도시가 서울 및 광역시에 비해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상담프로그램이 대도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생활관리 법률상식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에 있어서 30세이하의 연령층이 그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법률상식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법률상식상담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가정소득증대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에 있어서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득증

대방안에 대한 상담의 요구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 상담프로그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인구통계적 특성은 연령, 소득, 가족형태,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0대 연령층은 자녀양육 등 가족관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젊은 연령층이므로 자원봉사를 위한 활동시간의 여유가 적기 때문에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에 있어서도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자원봉사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 상담프로그램을 소득획득의 한 방안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가족형태를 살펴 보면 핵가족에 비하여 확대가족이 자원봉사를 위한 상담의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확대가족의 경우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 자원봉사를 위한 심리적·시간적 여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서는 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서울과 중소도시 거주자가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서울시와 중소도시의 요구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원봉사 상담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좋은 세상만들기, 생협 등의 생활문화육성 상담프로그램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는 인구통계적 특성은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이었다. 개인의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생각에 할 수 있는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소도시 거주자가 서울 및 광역시의 거주자에 비해 생활문화육성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은 대도시에 비해 지역적 관계망이 밀집한 중소도시가 상담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가정복지 서비스제도를 현실적으로 운

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가정복지 관련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조사대상자 909명 가운데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8명(27.7%)이었다. 또한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 중 앞으로 다시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33(94.0%)명, 참여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646명) 중에서 앞으로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564명(87.3%)이었다. 한편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의 참여와 관련이 있는 인구통계적 특성은 연령과 취업상태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획득하는 가정복지 서비스정보의 정보원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웃, 친구, 친지 등과 같은 인적 정보원이나 책, 신문, 잡지 등과 같은 수동적인 정보원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이에 비해 종교 및 사회기관, 사설기관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 적극적 정보원의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의 요구도에 있어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었으며, 가장 요구도가 낮은 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은 주생활관리 프로그램이었다. 그밖에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 중 요구도가 높은 것은 건강관리, 가족관계 개선 및 노후생활준비,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에 대한 교육의 순이었으며, 가정복지 상담프로그램 중 요구도가 높은 것은 건강관리, 가족관계 개선, 노후생활준비, 가정생활법률상식에 대한 상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와 상담프로그램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집단과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이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가정복지 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

시할 수 있다.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은 연령집단이나 거주지역, 소득집단 등과 같은 개인 및 가정생활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20대의 연령층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개선, 아동 및 청소년, 소비생활 개선, 주생활관리, 가정생활법률상식,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30대의 연령층에게는 가족관계 개선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50대이후의 연령층을 위해서는 가정생활 개선,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소비생활 개선, 건강관리, 주생활관리, 가정소득 증대,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거주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가족관계 개선, 가정생활 개선,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소비생활 개선, 노후생활준비, 자원봉사 등에 관한 프로그램이 유용하며, 중소도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가족관계 개선, 가정생활 개선, 소비생활 개선 및 자원봉사에 관한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이다. 그밖에도 소득수준에 따른 가정복지 교육프로그램은 100만원미만의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가족관계 개선, 가정생활 개선,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자원봉사 등에 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복지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20대의 연령층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개선, 가정생활법률상식, 자원봉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30대의 연령층에게는 아동 및 청소년,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자원봉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50대이후의 연령층을 위해서는 재산증식 및 조세관련, 건강관리, 가정소득 증대, 자원봉사와 관련된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 거주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은 가족관계 개선, 가정생활 개선, 소비생활 개선, 주생활관리, 자원봉사에 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중소도시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으로는 가족관계 개선, 아동 및 청소년, 가정생활 개선, 소비생활 개선,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자원봉사,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이다. 그밖에도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100만

원미만의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 가족관계 개선, 가정생활 개선,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자원봉사 상담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이 다양한 정보원에 의해 획득될 수 있도록 정보원의 특성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을 계획하되,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 각각의 정보원 효율성을 고려하여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원에 대한 태도를 다양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는 인식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 정보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결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로서, 교육이나 상담을 위한 기관이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시설 및 기기사용상의 지식 등과 같은 문제해결이 선행된다면, 개인 및 가정생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가정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출발적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교육방향과 사회적 연계성, 그리고 새로운 직종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공세권 외(1987).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2) 공세권 외(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김명숙(1995). 가족복지서비스기능강화. 국민복지기획단 전문가보고(미간행).
- 4) 김영숙(1995). 우리나라 가정복지사업의 실태와 과제.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대안가정학회 48차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3-20.

- 5) 김영모(1990). 한국가족정책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6) 남세진·조홍식(1995). 한국복지사회론. 서울:나남출판사.
- 7) 박민자(1994). 가족정책과 가족.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여성한국사회연구회.
- 8) 박천익(1996).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한국형 복지 모형의 정립. 21C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망과 과제. 대구대학교 학원창립 50주년 개교 40주년 기념학술대회. 75-117.
- 9) 변화순(1995). 가족정책 연구의 관점과 쟁점, 그리고 자리매김.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48차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1-43.
- 10) 서상목·최일섭·김상균(1989).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서울:한국개발연구원.
- 11) 성규탁(199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적 틀과 분석방법의 예. 사회복지. 115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73-102.
- 12) 이해경(1995) 한국의 가족정책:대안의 선택과 정부·민간의 연계. 가족관련학술단체협의회 및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주관). 1995년도 가정정책토론회. 삶의 질 선진화와 가족정책. 101-111.
- 13) 조홍식(1995) 가족관련 공공행정. 가족관련학술단체협의회 및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주관). 1995년도 가정정책토론회. 삶의 질 선진화와 가족정책. 113-130.
- 14) 최성재(1994). 복지국가와 가족. 가족학논집. 제 6집. 한국가족학회 239-266. 서울:교육과학사. 한국사회복지학회(1992),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사회복지국제학술회의자료집.
- 15) Zimmerman, S. L.(1988). *Understanding Family Policy: Theoretical Approach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